

#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

2023. 4. 27.

금 융 위 원 회    금 융 감 독 원    한 국 거 래 소  
KDB산업은행    IBK기업은행    신용보증기금  
한국회계기준원

## 순 서

I . 검토 배경 .....	1
II .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현황 .....	2
III . 공시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.....	5
IV . 국내기업 지원 방안 .....	7
V . 향후 계획 .....	12

## I . 검토 배경

- 최근 ESG 공시, 평가, 투자 등 ESG 금융 생태계 전반에 걸쳐  
    全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 형성 및 제도화 움직임이 진행 중
  - 특히, ESG 공시의 경우 ESG 평가 및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 
        하는 ESG 금융의 필수 요소로서,
  - 유럽,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 
        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앞 빠르게 추진 중
- 유럽은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CSRD\*의 공시기준인  
    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(ESRS)\*\* 초안을 '22.5월 발표하였으며,  
    '23.6월말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하고, '25년부터 의무화 예정
  - \*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(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)
  - \*\*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
- 미국도 그간 자율공시 중심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 
    초안\*을 발표('22.3월)했으며, '24년부터 의무화를 추진 중
  - \* (美SEC) '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-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'
-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는 해당 국가(권역)에서 사업을  
    영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
  - 특히, 최근 공시규제의 대상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종속기업 및  
        가치사슬\* 내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 시,
    - \* Scope3 공시의 경우, 가치사슬(value-chain) 전체에서의 모든 배출량을 합산
  -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중소기업들에도 간접적 영향 가능

⇒ 유럽,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현황 및 국내 영향을  
    분석하고, 국내기업의 ESG 공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

## II.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현황

### 가 유럽 (EU)

◆ EU는 관련 지침\*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ESRS)을 마련하여 제시하고, EU 기업·외국기업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\*\*할 예정

\* NFRD·CSRD, EU지침으로서 각 회원국들은 이를 반영하여 국내법 마련 필요

\*\* '25년부터 기업규모 및 EU 내 사업규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

□ (개발) '21.4월, EC는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비재무 정보공개지침(NFRD)을 개정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(CSRD) 발표

○ 의무공시 대상기업 범위 및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고, 사업 보고서 공시체계의 일원화, 제3자 검증 의무화 등 추진

□ (현행 : NFRD\*) EU 회원국 기업들의 ESG 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'비재무정보 공시지침'을 제정('14.10월)

\* Non-Financial Reporting Directive

○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기업\*을 대상으로 '18년('17 회계연도)부터 시행

\* 근로자수 500인 이상 & 자산총액 2천만유로 이상 등의 상장기업 및 은행·보험사 등

□ (도입 예정 : CSRD\*) 기존 NFRD\*\*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NFRD 개정한 성격의 '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'을 제정('22.11월)

\*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

\*\* 통일된 공시기준 부재(자율선택), CoE(원칙준수예외설명) 방식 등 다소 완화적

○ 보고 대상 기업은 EU 상장·비상장 대기업\* 및 일부 외국기업\*\*

\* ① 직전연도 근로자 수 250명 이상, ②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, ③ 자산총액 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

\*\* EU 내 매출 150만 유로 이상이고, EU 내 자회사나 현지법인을 둔 외국기업 등

- '25년 보고('24 회계연도)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, NFRD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공시대상 확대\*

\* ('25년보고) NFRD 대상기업, ('26년보고) 그 외 대형기업, ('27년보고) 중소기업

- CSRD에 따른 보고 시 적용될 공시기준으로,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(ESRS) 제정 진행 중('22.5월 초안 발표, '23.上 확정 예정)

\*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

### 〈참고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ESRS)

- EC로부터 위임을 받은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(EFRAG)이 CSRD가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을 구체화한 「지속가능성 공시기준(ESRS)」 초안을 발표('22.5월)

- ESRS 초안은 “포괄적 공시기준(2개)” 및 “주제별 산업무관 공시기준(10개\*)”을 제시

\* 환경 5개, 사회 4개, 거버넌스 1개

#### 【 ESRS 초안 체계】



- “산업별 공시기준”은 개발 중이며, '23.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

- EFRAG는 '23. 6월말까지 ESRS 최종 공시기준을 확정 예정

## 나 미국

◆ 美 SEC(증권거래위원회)는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('22.3월)

→ '24년부터('23회계년도)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의무 적용 계획

□ (SEC규정)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(Regulation S-K\*)을 통해 상장기업에 대하여 법정공시 의무 부여 중

\* 증권법(1933) 및 증권거래법(1934) 등을 근거로 한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SEC규정

※ SEC는 1933년 증권법(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를 규율) 및 1934년 증권거래법(유통시장 단계에서의 공시의무를 규정) 상의 공시사항을 통합하여,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-X, 비재무정보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-K를 통해 규율

○ (현행) ESG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공시대상 정보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겨 실효성은 낮은\* 상황

\* 기후 관련, '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가이드스('10년)'도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음

○ (도입 예정) '22.3월 SEC는 기후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초안 발표

□ (주요내용) 이번 SEC의 제안에서는 TCFD 등을 고려하여 Regulation S-K에 하위 항목을 신설하고 기후공시 사항을 명시

○ 공시 대상은 모든 상장기업(미국에 상장된 해외기업 포함)

○ 온실가스배출량(Scope 1·2·3) 공시시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,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Scope3 면책조항 도입

○ Scope 1·2 공시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, '24년 제한적 검증부터 적용 후 '26년부터 합리적 검증으로 강화

- 또한, 제3자 검증인 또는 검증기관의 규율체계를 규정

### Ⅲ. 공시규제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

#### 가 유럽 (EU)

- 국내기업이 EU에 상장되었거나, EU에 자회사를 상장한 경우, EU 기업의 협력사 등 공급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국내기업이라도 '25년부터('24회계년도) 단계적으로 EU 공시규제 준수 필요

※ (참고) '21년 對 EU 수출국내기업 수 : 대기업 527개사, 중견기업 1,181개사, 중소기업 16,206개사(통계청)

- 또한 **ESRS 공시 기준 및 공급망 실사 지침** 등에 따라,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공시사항\*의 경우 공급·판매망에 속한 국내기업들도 간접적 의무 부담 가능

\* 예: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, 기업활동사슬 내 노동자 관리 등

- 단, EU회원국들은 CSRD에 따라 별도 국내법을 마련할 예정으로, 국가별로 공시대상·시기 등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

#### 【 EU CSRD 공시 대상회사 및 시기 】

	대상회사	의무공시 시기
1	NFRD 요건 해당 기업 (일정규모(大大)* 이상의 EU 상장 국내기업)	FY24 (25년 공시)
2	EU 소재 대기업 (일정규모(大)** 이상의 EU 상장·비상장 국내기업)	FY25 (26년 공시)
3	EU 소재 중소기업 (일정규모(中小) 이상의 EU 상장·비상장 국내기업)	FY26 (27년 공시)
4	EU 매출액이 최근 2년 동안 연간 1억5천만유로 이상인 非EU기업, EU에 일정규모 이상의 종속기업이나 지점을 보유한 非EU기업	FY28 (29년 공시)

\* ①근로자 수 500인 이상이고, ②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

\*\* ①근로자 수 250인 이상, ②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, ③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 충족 기업

## 나 美 SEC 기후공시

-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\*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SEC 기후 공시의무를 부담

\* 현재 총 10개사 : 포스코, 한국전력공사, SK텔레콤, KT, KB금융그룹, 신한금융그룹, 우리금융그룹, LG디스플레이, 그라비티, 쿠팡 등

-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국내기업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

- 공급망 내 탄소배출량도 공시하도록 하는 **Scope 3 공시의무** 등으로 인해, 보고기업의 가치사슬 내 속해있는 국내기업(미국에 원재료·부품 등 수출기업)들도 **배출량을 제출해야** 할 수 있음

### 【 SEC 단계적 공시의무 적용 일정 】

	대상회사	FY23	FY24	FY25	FY26	FY27
1	Large Accelerated Filer (유동자산(이하동일) 시총 7억달러 이상)	Scope 1&2	+제한적검증		+합리적검증	
			Scope 3			
2	Accelerated Filer (시총 0.75억~7억 달러 & 매출 1억 달러 이상)		Scope 1&2	+제한적검증		+합리적검증
				Scope 3		
3	Non-Accelerated Filer (시총 0.75억 달러 미만 또는 시총 0.75~7억 & 매출 1억 달러 미만)		Scope 1&2			
				Scope 3		

◆ 유럽과 미국의 공시규제 강화는 직접적으로는 유럽·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기업에 영향

- 다만, 공시규제의 대상이 종속기업 및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,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중소기업들에도 간접적 영향

⇒ 대기업과 달리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제품 생산·공급 과정의 환경·사회 리스크 점점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



## IV. 국내기업 지원 방안

◆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역량 강화를 지원

### 1. 글로벌 공시기준 국문 번역 지원

- **(현황)** 글로벌 공시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거나 대비하려는 국내 기업이 점차 증가\*함에도 불구하고, 국문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

\*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 수(거래소) ('20) 38 → ('21) 78 → ('22) 128개사

- 아울러 ESG 공시 의무화('25~)\*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, 기업들이 ESG 공시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쌓아나가도록 지원할 필요

\* ESG 공시 의무화 일정: (현행) 자율 → ('25~) 일정규모(예: 자산 2조원)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→ ('30~) 쉐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

- **(지원 방안)** 기업들이 국내외 ESG 공시 확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, ISSB, 유럽 등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국문 번역 추진(회계기준원)

※ (참고) 금융위원회·회계기준원은 SASB(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)의 산업별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2차례('21.11월, '23.1월)에 걸쳐 국문으로 번역·제공

### 2. ESG 공시 동향 파악을 위한 세미나 개최

- **(현황)** ESG 분야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, 기업, 투자자,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여론 환기 필요

\* 그간 「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」('21.12월), 「ISSB 초청 공개 세미나」('22.10월) 등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

- **(지원 방안)**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·토론회 개최 지속

- EU(ESRS), 미국(SEC) 등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동향 및 ISSB의 ESG 공시기준 제정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세미나 개최\*

\* '23.8월 예정(회계기준원), ISSB 부위원장(Jingdong hua, 前 세계은행 부총재)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유럽, 美, 日의 핵심 인사 초청 예정

### 3. ESG 대응 컨설팅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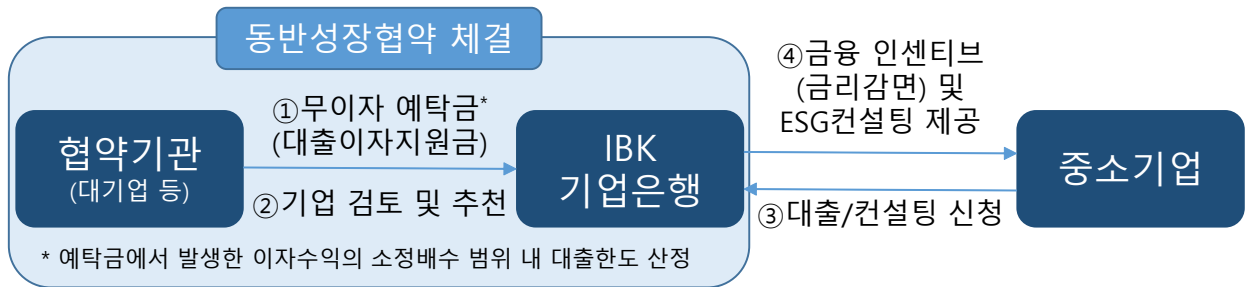
- **(현황)** 일부 대형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기업 대부분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등 ESG 대응에 외부기관 컨설팅을 사용
  - 보고서 기획 및 작성에 매년 상당 금액이 소요되며, 초반에 ESG 전략 마련 등으로 컨설팅 범위 확대시 비용부담 가중
    - \* 기관별로 상이하나 평균 1.5억원 수준이며, 전략 등 추가시 3억원까지 소요(참고:거래소)
  - ESG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되는 경우 비용 수준 추가 상승 우려
- **(지원 방안)** 기업의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ESG 경영 도입 및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·자문해주는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, 기업에 ESG 경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

#### < 1. 기업은행 >

- ① **(맞춤형 컨설팅)** 기업이 ESG를 실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「맞춤형 ESG컨설팅 서비스」 제공
  - (교육) ESG 인식변화 및 실천을 돕는 찾아가는 교육 콘텐츠 제공
  - (자가진단) 기업이 ESG 수준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
  - (정밀진단) EU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여, 협력사·수출기업 대상으로 ESG 정밀진단(실사) 컨설팅\*을 제공하여 주요 문제점 및 대응방향 제시
    - \* '22년 8월 이후 현재 109개사 완료·접수 中
  - (심화컨설팅) ESG정밀진단을 통해 확인된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, 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

- ② (정책금융 지원) 대기업 등 협약기관과의 동반성장협약에 따라, 협약기관이 예치한 무이자예탁금 등을 재원으로 ESG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ESG 컨설팅, 저금리 대출 등 인센티브 제공

< 동반성장협약을 통한 공급망 내 중소기업 지원 방안 >



< 2. 신용보증기금 >

- ① (단계별 컨설팅)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기업 연수 - 컨설팅 - 비대면 상담회를 연계한 「ESG 경영 더블업 프로그램」 운영 추진

\* 기존 ESG 경영컨설팅('22~, '22중 30건 운영)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

- (준비기)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 임직원에서 ESG 경영 인식 확산을 위한 온·오프라인 연수 실시
- (도입기) 기업의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ESG 경영 도입 및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적극 지원
- (실행기) ESG 경영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, ESG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솔루션 웨비나(webinar) 개최

- ② (정책금융 연계)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보증심사시 ESG 경영역량을 평가하고, 우수기업에 인센티브(한도 확대 등)를 부여하는 「ESG 경영역량평가제도('22~)」와 연계 운영

## 4. ESG 플랫폼을 통해 기업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

- **(현황)** 현재 ESG 정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ESG 정보를 한 곳에서 (One-stop)에서 확인할 수 있는 'ESG 포털' 서비스를 운영 중('21.12~)

※ 참고 : 한국거래소 ESG 포털(ESG 종합 정보플랫폼, <http://esgportal.kr>)

- 상장사 ESG 정보(공시, 평가등급 등), ESG 금융상품 통계(채권, 펀드 등),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



- 다만 ESG 경영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ESG 컨설팅이나 정보 등을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에도,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접근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음

- **(지원 방안)** 정책금융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접점이 높은 기업은행, 산업은행을 통해, 기업을 위한 ESG 컨설팅 및 정보를 종합 제공

- ① (기은) '22년 7월 이후 자가진단 컨설팅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ESG 포털\*(IBK ESG BOX)을 운영 중

\* 자가진단 구독서비스, 환경경영성과분석(온실가스배출량 등) 서비스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도화 사업 진행 중

### <IBK ESG BOX 구성>

ESG 소개	ESG 컨설팅	ESG 금융상품	폐기물 소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SG 이해하기</li> <li>ESG 관련뉴스</li> <li>중소기업 ESG가이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SG 컨설팅 소개</li> <li>ESG 자가진단</li> <li>환경경영성과분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SG 경영성공지원 대출</li> <li>IBK 홈런 장학적금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기물 수거 서비스</li> </ul>

- ② (산은) ESG 자가진단, 탄소 배출량 관리 툴, 종합컨설팅 연계, ESG 관련 정보제공 및 정책금융 소개 등을 **One-stop**으로 제공하는 KDB ESG 컨설팅플랫폼 오픈(5월말 예정)

<KDB ESG 컨설팅플랫폼 구성(안)>

KDB컨설팅 소개	경영 컨설팅	ESG 컨설팅	ESG 금융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사</li> <li>KDB 컨설팅 프로그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영전략 컨설팅 소개</li> <li>해외진출 컨설팅 소개</li> <li>턴어라운드 컨설팅 소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SG 컨설팅 소개</li> <li>ESG 자가진단(약식/심층)</li> <li>ESG 자료실</li> <li>탄소 배출량 관리 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SG 여신상품 소개</li> </ul>

## 5.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

- (현황) '25년부터 대형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 추진중
- 이에 따라, EU, 美 등 해외 주요국의 공시 강화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중 공시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
  - 공시 가이드라인이나 모범사례 등이 부족하여 ESG 공시보고서 작성 시 외부 기관의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도 존재
- (지원 방안)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시, 해외 주요국 및 ISSB 기준과의 정합성을 적극 고려하여 기업의 이중 부담을 최소화
- 또한, 기업이 자체적인 ESG공시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담은 공시 가이드라인, 모범사례 등 제공
    - 산업별 공시 모범사례 전파, 공시 어려움이 제기되는 내용(예: 중요성 판단, Scope3 배출량)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(거래소, 회계기준원\* 등)
- \* 예 : ISSB 최종 기준을 국내 주요 기업에 실제로 적용하여 공시보고서를 작성해보는 연구 프로젝트 진행(회계기준원, '23.下 예정)

### ※ 참고 : 그간 거래소의 ESG 자율공시 지원방안

- (ESG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) 「ESG 정보공개 가이드스」를 제정하여('21.1월)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침 제시
- (모범사례 전파)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하고, 보고서 작성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Best Practice 공유('22.12월)
- (정보 플랫폼, 교육) 「ESG 포털」 개설, 상장법인 대상 ESG 공시 교육 지속

## V. 향후 추진 계획

- 「ESG 금융 추진단」 제2차 회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, 주요 내용을 대외 발표(4.27일)
- 추진방안별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고, 시행 시기에 맞춰 대외홍보 진행